지난 22일 광주수창초등학교 학생들이 '두드림에서 오는 상상' 전시실에서 음블럭 악기를 이용한 합주를 체험해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두드림에서 오는 '상상의 예술세계'

음악·미술·놀이-인터렉티브미디어, 어린이들과 교감

문화전당 전시 콘텐츠 활용… 수창초교서 9월 12일까지

▲인터렉티브미디어 = 보고, 만지고, 반응하는 공감각적 감각이 상호작용하는 쌍방향 미디어로 최근 통신업체와 예술장르에서 새로운 매체로 각광받고 있다.

"자,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 음원 막대 골랐어요?" "네~" "그럼, 신나게 연주해볼까요?"

지난 22일 광주시 북구 북동 수창초등학교 교실. 도슨트의 지휘 아래 각기 다른 아이들의 몸짓은 즐거운 음악이 되어 퍼진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흥이나자 어깨가 들썩이고 재잘재잘대며 옆 친구를 보았다 웃기도 한다. 열 명의 아이들이 하나 되어 생생한 음악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광주에 조성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채울 전시 콘텐츠의 하나인 '두드림에서 오는 상상-음악, 미술, 놀이 인터렉티브미디어와의 즐거운 만남'전이 지난 22일부터 광주수창초등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어린이문화원 운영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는 음악을 중심으로 미술과 놀이, 인터렉티브 미디어가 서로 만난 체험 위주의 특별한 전시회다.

소리를 듣자, 몸으로 연주하자, 리듬을 익히자 등 5개 공간으로 구성된 전시는 순전히 몸으로 음악을 느끼고 즐기도록 했다. 즉 오감으로 느끼고 실험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40여 분의 시간동안 아이들은 자연, 동물, 내안의 상상의 소리가 음악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디지털 리듬악기를 이용해 즉흥연주도 해보며 음악과 친근해 질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수혁(12)군은 "정말 신나고 즐거운 체험이었요. 자동차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신기했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조각 및 설치작가 김상균씨와 만화가 신명환씨가 공간연출을 했고, 미디어 아티스트 이배경씨와 음악감독 최재광씨도 참여했다.

연계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어린이 소리 창작교실'도 주목된다. '주홍의 즐거운 상상놀이'라는 제목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프로그램 디렉터 주홍, 음악 디렉터 김현옥)에서는 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라이트 박스 위 고운 모래에 이미지를 만들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했다.

부스를 공감각적으로 구성, 음악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했으며 연주자와 객석의 경계를 없애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직접 타악기를 연주하는 공연 체험도 열린다.

추진단의 이유진씨는 "이번 전시는 음악을 중심으로 미술, 놀이, 쌍방향 미디어를 결합한 체험형 전시"라며 "아이들의 음악적 감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번 전시회 외에도 지난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어린이 소리창작교실'을 운영했으며 오는 7월1일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사들을 위한 체험 워크숍 '톡톡 콘서트'(TOC-TOC CONCERT)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문화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개원 가운데 하나로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예술 교육콘텐츠의 창작과 전시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참여방법 이렇게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12일까지 1일 2회(오전 10시와 오후 1시, 방학 중 오후 3시 추가) 도슨트와 함께하는 체험형 전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사전 예약만 하면 관람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광주 YMCA(062-232-6131)를 통해 가능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홈페이지와 광주 YMCA 어린이 블로거단 홈페이지를 찾으면 관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앵글에 담은 바다, 그리고 어촌의 삶

20년 취재 현장의 대기록

광주일보 위직량 사진전

7월1~7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갯내음에 사로잡힌 날들의 기록.

바다에 기대어 사는 우리 어촌의 모습을 생생히 담은 위직량 사진전 '바다 그립고도 두려운'이 7월 1일부터 7일까지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2층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광주일보 독자서비스국 위직량(51) 차장은 이번 전시에서 1990년대 초부터 20여 년간 사진기자로 취재 현장을 누비며 카메라에 담은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사진전은 위 차장이 동해, 남해 그리고 찰진 갯벌이 아득히 펼쳐진 서해안 곳곳을 찾아다니며 그 아름다움에 취하고 질펀한 삶에 감동하여 풍경화 그리듯, 일기를 쓰듯 정리한 삶의 기록이자 체험현장으로 의미가 각별하다.

주로 컬러 슬라이드와 네거티브 필름으로 작업한 '갯벌, 흐름-무안', '자리돔-제주', '갈치-영암' 등의 사진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빛이 바래고 퇴색했지만, 아련한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특히 전통적 어로방식이지만 지금은 자취를 찾기 힘든 신안의 '독살'과 남해의 '죽방렴'부터 검푸스름한 새벽을 깨우며 출항하는 거문도 어부, 순천 갯벌에서 맛조개를 채취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바다와 함께 살을 섞어온 어부들의 진한 땀냄새가 묻어난다.

'갯벌 흐름-무안'

위 차장은 "광포한 바다에 기대어 사는 어촌의 모습을 수채화처럼 보여주자는 의도로 기획했다"며 "날로 피폐해지는 우리 어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풍요로운 내일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360-846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명창 송순섭, 제자들과 한무대

'동편제 적벽가 연창회' 오늘 광주서구문화센터

애잔하고 구슬픈 서편제 소리와 달리 동편제 소리는 호방한 기운과 강인한 소리로 국악팬들을 사로잡아왔다.

동편제 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송순섭(광주시립국극단장)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동편제 적벽가 연창회'를 개최한다.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 서구문화센터.

(사)동편제 판소리 보존회가 주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박형진·유미라·이소연·이현정·김양화·한나리씨 등이 '공명선생 거동보소', '동남풍 비는 대목', '자룡 활 쏘는 대목', '적벽대전' 등 '적벽가'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연창 형식으로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립국극단원들이 특별출연, 풍물놀이와 교방무 등을 선사한다. 문의 062-514-26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인협 새 회장에 이성관씨

전남문인협회 제 7대 회장으로 이성관(64·전남시인협회장)씨가 26일 선출됐다.

이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분열된 문협을 화합하고 시·군지부와 연계한 사업을 강화, 명실공히 전남을 대표하는 문인단체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문협의 화합을 위해 입회 5년 이상, 65세 이상 회원의 연회비 면제, 전남문협 회보 연4회 발행, 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할 것"이며 "문협 사무국과 행사위원회를 분리 운영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흥 출신인 이 회장은 1983년 아동문학평론 추천으로 등단했으며 한국문인협회 여수지부장, 국제펜클럽전남지역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아동문학작가상, 대한민국동요대상, 전라남도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회장 선거과정에서 등록 회원 중 지난해 12월까지 회비를 납부한 196명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해 일부 회원들이 항의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